

숨은그림찾기 <79>



찾아(보)세(요) 부엌칼, 펜촉, 고추, 서툰족, 열대어, 바늘, 다리미, 상어, 새집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말한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줘요." "나 오늘 3천만원 생겼어." "정말요?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요?" "그 돈 퇴직금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지난주 정답

열대어, 고추, 양주잔, 상어, 우산, 구두, 몽당연필, 종이배, 서툰족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천,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명완(광주시 남구 주월동) 황유경(광주시 북구 중흥1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883년 태극기 공식 국기 제정 선포

흰색 바탕에 적색과 청색으로 이루어진 태극 문양, 그리고 네 모서리에 청색으로 칠해진 건(乾)·곤(坤)·감(坎)·이(離)의 사괘(四卦).

독립 기념관은 지난달 28일 조선이 국기로 사용한 태극기를 복원해 언론에 공개했다. 박영효가 1882년 일본 수신사로 가는 배에서 그렸다는 국기의 모사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126년 전의 태극기이다.

고종은 박영효가 제작한 태극기를 1883년 3월 6일 국기로 제정해 선포했다.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실물 크기의 사본은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머물던 당시 일본 외무성 외무대보(차관) 요시다 기요나리가 주일 영국공사 해리 파크스에게 보낸 문서에 첨부돼 보관되어 있다.

흰 바탕 중앙에 태극 문양, 건곤감리의 4괘는 현행 태극기와 같지만 태극 문양의 소용돌이가 더 강하며 괘의 색 역시 검은 색이 아닌 청색이다. 문서에 의한 크기는 가로 4척7촌(142.41cm), 세로 3척8촌(115.14cm), 태극 지름 2척7촌(81.81cm)이다.

이 문서에는 또 "머칠 전 귀하(파크스)가 구두로 요청한 바에 따라 조선 국기로 알려진 것발의 사본을 동봉한다"라고 쓰여있어 모사본이 한국 국기의 원형임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박영효가 그린 원래의 국기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1882년 10월 2일자 일본 '시사신보'에 실린 스케치로 그 형태를 추정해 왔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외교문서의 모사본이 발견돼 최초의 태극기가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됐다.



지난달 28일 처음 공개된 태극기 최초의 원형.

국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개항 후 서구 열강과의 교섭이 빈번해지면서였다. 1876년 운요호사건으로 "운요호에 연연히 일본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砲擊)을 하였느냐?"는 일본의 항의를 받을 때까지 조정의 인사들은 국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후 국기 제정 필요성이 활발하게 거론되면서 1883년 태극기가 공식국기로 제정됐다. 그러나 해방 때까지 구체적인 제작법이 명시되지 않다가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되었다.

1949년 1월 대통령 특명으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행 국기가 확정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김빠진 탄산음료 재활용

탄산 음료는 용기를 열고 나면 금세 김이 빠져 맛이 떨어집니다. 김빠진 탄산음료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김빠진 사이다

김빠진 사이다는 꽃병에 부어보세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 꽃이 물을 잘 흡수해 심심함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사이다를 차갑게 해서 부어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빠진 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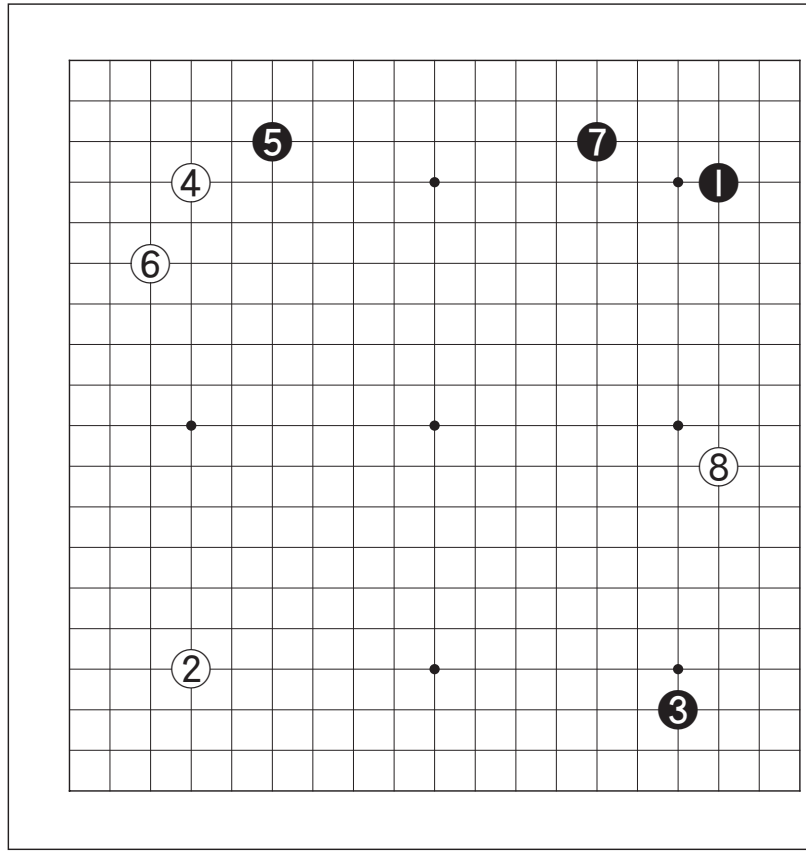
고기를 재울 때 콜라를 이용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누린내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번기나 욕조, 세면대에 김빠진 콜라를 조금씩 흘려주면서 닦아주면 묵은 때를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또 김이 빠진 콜라를 방통실에 얼려 두었다가 과일과 함께 믹서기로 갈아주면 맛있는 슬러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5일(음 1월 28일 甲辰)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광주유단자연구회 리그

최대의 라이벌 1보(1~8)

결승전 白 심재욱 6단 黑 정찬근 6단

광주유단자연구회는 심재욱 6단 필두로 이지역의 강자들이 망라된 대표적인 바둑 연구모임으로 바둑연구와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 바둑은 연구회의 1.2월 리그전의 결승전으로 심재욱 6단 연구회에서 생백을 이루고 있는 정찬근 6단 대결이다.

심재욱 6단 설명이 필요없는 이지역의 최강자로 나이가 들수록 전국 무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어서 아마바둑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작년 88회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광주가 4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창호배 3위, 전남도지사배 시니어부 준우승 등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다.

정찬근 6단 현재 금호지구에서 화랑바둑학원을 열고 꿈나무 육성과 바둑보급의 최일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으며 광주바둑협회의 전무이사를 맡아 바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지역 바둑계의 대를 보았다.

두대국자는 광유회에서 최대의 라이벌로 예상대로 결승에 올라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백 8이 장기전을 예고하는 유연한 갈라잡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하진 중국 판웨이징 꺾어

제6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에 출전한 이하진 3단이 한국팀에 귀중한 1승을 안겼다. 이하진은 4일 서울에서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7국에서 중국의 판웨이징 2단을 상대로 158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하진은 초반 다소 밀리는 듯했지만 판웨이징이 초읽기에 걸려 당황한 틈을 노려 후반 역전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로써 각각 3명씩 남은 한국과 일본이 5일 벌이는 8국이 이변 대회 우승컵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이다. 우승상금은 7천500만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10>

오하오우 니혼고 <1110>

니하오 풍구워 <87>

한자 이야기 <697>

English lesson content: 'I have got to the mall. 저는 쇼핑을 하러 가야 합니다.' with dialogues and exercises.

Japanese lesson content: '意外(いがい)と優(やさ)しいですね. 의외로 자상하시군요' with dialogues and exercises.

Chinese lesson content: '现在几点? 지금 몇 시입니까?' with dialogues and exercises.

Character story content: '角者無齒(각자무치) 별 각, 사람 자, 없음 무, 이치' with explanation and exercises.